

# 강진 쌀귀리 산업 확대…지역 농업·식품·관광 ‘활력’



## 군, 계약재배·가공산업 육성…고부가가치화 확대 밥상 레시피·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 제품 다각화

강진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쌀귀리를 활용한 농업·식품 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강진군은 전국 최대 쌀귀리 주산지로, 2025년산 재배면적 약 1163㏊, 생산량 1720t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쌀귀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계약재배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쌀귀리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강진군 쌀귀리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아침밥 대용으로 귀리선식을 비롯해 귀리떡과 귀리빵

이 인기를 끌고 있고, 쌀귀리가 점가된 쌀귀리 고추장, 쌀귀리 스낵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판매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표로 ‘건강밥상 꾸리기’의 프로그램을 통해 쌀귀리 밥상 레시피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건강 간식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쌀귀리 피자와 강정 시제품을 개발중이어서 쌀귀리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강진군은 쌀귀리 개발 상품의 상품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판로 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순환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귀리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쌀귀리는 강진의 기후와 토양이 만들어낸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다”며 “앞으로도 가공·관광·유통을 아우르는 전략적 육성을 통해 쌀귀리를 강진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쌀귀리 산업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청년 창업과 지역 일자

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쌀귀리 가공 및 유통 분야에서 신규 창업 수요가 점차 늘어나며 강진군 쌀귀리 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쌀귀리는 강진의 기후와 토양이 만들어낸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다”며 “앞으로도 가공·관광·유통을 아우르는 전략적 육성을 통해 쌀귀리를 강진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기자 sa432252@gwangnam.co.kr



**힐링·건강 관리 담은 ‘마음치유’** 함평군보건소는 최근 지역 내 치유자원을 활용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치유 in 함평’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신광면을 시작으로 매월 2회, 회당 14명 내외의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모약산치유센터·함평돌마리해수찜치유센터 등 치유자원을 활용한 건강측정과 온열테라피, 피부·발마사지, 네일아트 등 맞춤형 힐링 서비스와 푸드테라피, 도자기공예 등 감성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진은 마음치유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자기공예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은 최근 군청에서 ‘함평군 농특산품 러시아 시장 수출 연계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러시아 시장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함평 농특산물, 러시아 수출길 오른다

### 군, 간담회 개최…계약과정 공유·해외 판로 개척

함평군 농특산물이 러시아 수출길에 오를 채비를 마쳤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함평군 농특산품 러시아 시장 수출 연계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러시아 시장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한 러시아 유통업체 대표가 함평군 김밥용 김·조미김 수출을 문의한 것이 인연이 됐다.

앞서 러시아 유통업체는 지난 26일 함평군 소재 ‘죽맛나푸드’와 김밥용 김·조미김 800만 달러(한화 약 11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러시아 수출 계

약 과정을 공유하고 업체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잡곡·소고기 등 함평군 농특산품의 러시아 시장 추가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군은 간담회를 계기로 러시아 유통업체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농특산품 수출 품목을 다각화해 안정적인 해외 판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서의 상담이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진 뜻깊은 사례다”며 “K-HPD 브랜드를 매개로 해외 마케팅과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함평군 농특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 담양, 관광지 상권 활력 위한 ‘상생 페이백’ 운영

### 내달 1일부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환급

담양군이 2월 1일부터 대표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전액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관광객의 발길을 소비로 연결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광객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 시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상품권으로 환

급받게 된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어린이·군인 1000원이며, 환급받은 상품권은 메타랜드 내 상가와 담양읍 중앙로 일대 상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담양사랑상품권(1000원권)이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개월간은 담양사랑상품권 대신 ‘임시 환급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

정이다.

이를 통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방문이 자연스럽게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운영 상황과 이용객 반응을 분석해 오는 4월부터 환급

수단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고, 사용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25년 대나무죽제 기간 메타세쿼이아랜드와 죽녹원 입장료 환급 상품권을 발행해 약 452억원 규모의 지역경

제 파급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담양읍 중앙로와 담양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만원의 담양사랑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운영해 연말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환급제도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체감 할 수 있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운 기자 jnwnews@gwangnam.co.kr

## 입지 좋은 장성호 ‘스포츠 명소’ 급부상

### 축구장·야구장 등 인프라 갖춰

장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장성호 스포츠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장성 최초로 전남체육대회와 전남장애인체전을 개최하며 조성한 장성호 체육공원에 체육인들의 밭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장의 여건과 제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도의 방향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법적인 기족관계로 인해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기족관계 해체 여부를 심의해, 소외된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소외된 가족관계로 인해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기족관계 해체 여부를 심의해, 소외된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호 체육공원에서 훈련 중인 원주고 야구 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예정이다.

군은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등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최근 훈련장을 방문해 원주고등학교 선수들을 격려하며 “전국 단위 조정 경기가 열리는 장성호와 ‘전지훈련 최적지’ 장성호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과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이번 원주고 선수단 유치로 인한 경제 효과가 약 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장성=이형범 기자



화순군은 2월 19일까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한 제조업, 공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업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농공단지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포함돼 있어 입주기업은 물론 입주 예정 기업도 융자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5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 한도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0억원 한도로 2년에 2회로 지급된다.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구청장은 “화순군은 202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